

친환경 수소여객선 고대 마한 영산강 뱃길 누빈다

영암, 2027년까지 대불산단 선박기업과 30인승 건조
‘지역소멸대응기금’ 40억 투입…탄소 무배출형 선박

친환경 수소여객선이 영암군 일대 고대 마한의 영산강 뱃길을 되살린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특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2027년까지 총 40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 건조에 나선다.

대불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제조기업인 ㈜빈센, (유) 이원마린, ㈜마스터볼트 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여객선 건조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산업 체질 개선, 생태·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장 17m, 30인승, 25t 규모의 완전 탄소 무배출형으로 건조될 여객선에는 ㈜빈센이 독자 개발한 100kW급 수소연료 전지, 70kW 추진모터 2기, 92kWh 배터리 4기가 탑재된다. 이 수소여객선은 영산강을 따라 나불도에서 시종면 마한문 화공원까지를 오가며, 영산강 옛 뱃길을 복원하고 마한의 심장이던 영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도 재조명한다.

군은 여기에 영산강 수변 생태체험을

더해 ‘에너지 전환-역사문화관광-생태 체험’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여객선 개발을 위해 ㈜빈센은 수소소재저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객선 추진 시스템 공급과 설계, 기술자문을 맡고, 국산형 수소 선박 기술 고도화도 모색한다.

이원마린은 수소연료전지 여객선 건조를 담당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사업 운영 총괄, 영산강 항로 수심 측량, ‘친환경

소형선박 협의체’ 구성 등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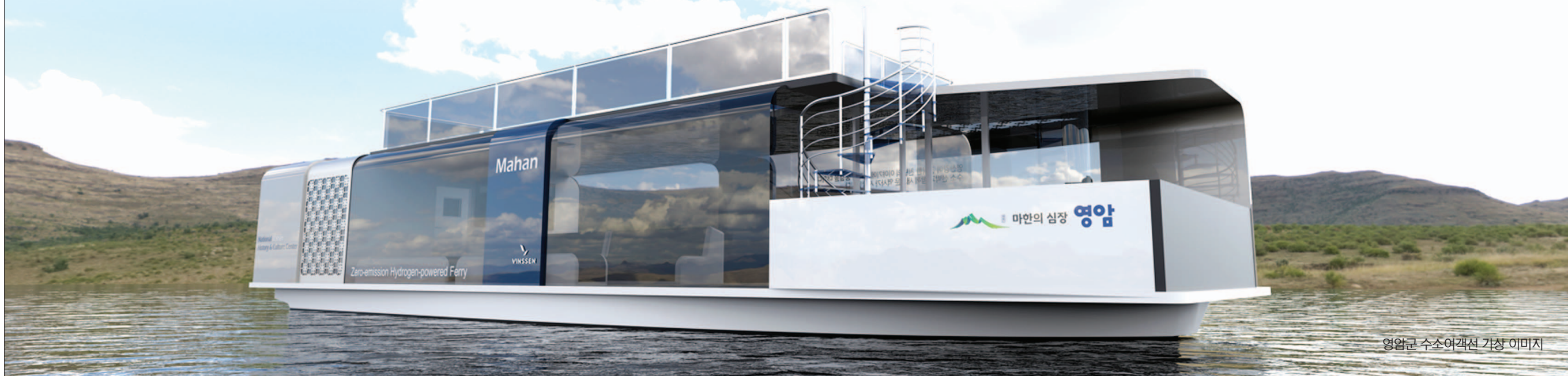
여객선 건조 첫해인 올해는 선박 개념 설계, 유체 해석, 폭발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구조물 조립, 해상 시운전, 선박 완성을 추진한다.

군은 수소여객선 건조 과정에 대학생 현장실습과 청년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지역에 관련 기술이 축적되도록 하고,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업을 친환경·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는 모범사례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 수소여객선 디자인을 확정된 군은 빈센에 설계를 의뢰했고, 지난 11일 ‘수소여객선 제조 수행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건조될 수소여객선은 영암의 미래를 밝힐 다양한 가치를 집약하고 있다”며 “성공적 건조와 운영으로 산업과 관광, 일자리와 기술을 아우르는 혁신의 새모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광국 기자 hck1342@



영암군 수소여객선 가상 이미지

무안,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김준영 박사 초청 특강

무안군은 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준영 전남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RE100 국가산단 유치 및 조성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번 특강은 군이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전 직원이 함께 추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영 박사는 글로벌 RE100 추진 동향과 국내외 기업의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RE100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 짓는 핵심 경쟁력이다”며 “RE100 산단은

친환경·고효율 산업단지 모델로서 미래 산업 전환기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짚으며, 중앙정부와 전남도, 무안군의 역할 분담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무안군이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해상풍력·태양광 등)과 우수한 교통인프라(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KTX 개통 예정)를 기반으로, RE100 국가산단 입지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산 군수는 “RE100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대, 외국인여성 사회안전망 구축 앞장

목포대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손잡고 외국인·여성의 사회정착지원과 권익보호강화에 나섰다.

12일 목포대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전남 지역 이민자·외국인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여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 이민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



목포대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내 강단에서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전남 내 외국인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응 지원을 비롯해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정보 제공,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자립 프로그램 기획, 여성일자리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층적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성평등 정책 확산, 일·생활 균형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등 지원

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넘어 취업 연계, 교육,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전남 지역 내 이민·여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망을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사례 축적, 정책 수요 분석, 공동 기획 및 운영 등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외국인과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성평등은 물론 포용적인 전남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PRIMIUM LIGHTING SYSTEM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엔 진우엘텍!

“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 (One-Stop Service) 를 통해 고객은 조영의뢰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 | 03
제품
생산 | > | 04
제품
시공 | > | 05
유지
관리 |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